

## 교수의 自救 努力이 필요하다

李 令 子  
(聖心女大 社會學科)

현재 한국에서는 어느 社會集團이나 할 것 없이 심각한 陣痛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이 겪어 온 희생과 아픔을 과연 어떻게 昇華시켜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가 담긴 진통이다.

특히 大學은 더 큰 진통을 앓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사회 변동의 動力을 제공하는 의미심장한 몫을 담당해 온 對價이기도 하다. 즉, 국가와 사회에 대한 歷史的 責任의 몫을 過重하게 짊어져야 했던 나머지, 대학 사회 자체의 內質을 충실히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던 韓國的 狀況의 特殊性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敎育制度의 모순과 敎育政策의 오류들로 인해 대학 사회의 自律的인 發展이 저해되었던 점도 물론 看過할 수 없다.

大學社會를 일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오늘의 대학 문화에 대해 갖가지 근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오늘의 학생들에게 교수의 役割이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교수는 '學點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흔히 교수의 특징을 말할 때 '학점을 잘 주는 교수'인가 아닌가부터 가리고, 또 수강 신청을 할 때도 '학점을 쉽게 딸 수 있는 과목'인가의 여부가 과목 선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특히 課政이 아닌 과목일수록 한낱 관객처럼 편안하게 앉아 머리를 하나도 굴리지 않은 채 강의를 듣게 하는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점을 쉽게 주는 교수들 뒤에서는 不誠實하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를 열심히 제 발로 찾아 가는 격이지만, 학생들은 그들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든 학점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교수의 강의는 學點配定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때문에 학문적인 소득이 큰 강의라 할지라도 과제를 등 기타 부담이 클 경우

일단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또 엄격하게 점수를 매기는 교수 역시 별로 달갑지 않을 뿐더러 거부감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기 쉽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모든 대학에서 一律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수의 역할에 대한 기대나 평가는 일차적으로 점수와 연관되는 극히 실리적인 利害關係가 우선적이며 또 때로는 唯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나 학점을 따내는 것에는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점수 자체에는 그만큼의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같은 경향이다. 시험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필기를 잘하는 학생의 노트를 통째로 복사하여 당일치기하면 된다고 믿는 학생(시험 기간 동안 복사장이 봄비는 양상은 눈에 익은 지 오래되지 않은가?), 강의 출석은 대리 대답시키거나 출석을 부를 때만 잠깐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 때우려는 학생, 아니면 취업 준비나 갖가지 교내 및 교외 활동 또는 개인 사정을 구실로 교수에게 노골적으로 양해를 얻어 출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리포트의 경우 역시 요령껏 형식만 갖추어 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최근에 필자가 직접 경험한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 대형 강의를 맡았는데 개별 리포트를 받아 보니 내용이 똑같은 보고서들이 발견되었고 결국 이 사실을 공개하여 본인들이 자진 해명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변명과 경위 설명은 각양각색이었고 또 놀라웠다. 한 학생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모르는 다른 학생의 보고서 준비 노트를 손에 넣게 되어 이를 무조건 배껴 내었다고 했으며, 한 학생은 선배가 참고하라고 빌려 준 노트를 본인의 허가도 없이 그대로 옮겨 적어 만든 보고서임을 스스로 없이

인정하였다. 또 어떤 학생은 가당치도 않은 예를 들은 것을 똑같이 배껴 적은 덕분에 그와 똑같은 내용의 또다른 보고서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었고, 결국 필자로 하여금 수백 편의 보고서들 속에서 그 원본을 찾아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게 만들었다. 교수 생활 9년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아마도 그동안에는 필자의 요구를 비교적 잘 따라 주었던 학생들을 만났던 행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세삼 고마움마저 느끼게 되었다.

終講 후 일부 학생들이 마련한 대화 모임에서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어 학생 일반의 생각과 함께 다른 행태의 사례들을 듣게 되었다. 우선 학생들은 수백 명이 듣는 대형 강의의 경우 교수가 리포트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고 이름만 확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교들이 적당히 알아서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리포트 제출을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수 연구실 문 밑으로 넣은 다른 학생의 리포트를 베내어 결장만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제출하는 학생까지 있다고 하였다. 결국 리포트 숙제를 要式行爲로 생각하여 안이하게 혹은 부정적하게 처리하는 현 행태에 대한 책임은 학생보다는 우선 교수에게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었다—이 말은 틀린 것만은 아닌 것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교수의 일차적 역할을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학점을 잘 주는 정도의 일로 인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역할의 수행에는 權威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보다 극단적인 학생의 逸脫行爲까지도 교수의 불성실한 역할 수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를 느끼게도 한다. 예컨대 소위 '義理' 때문에 기절할 수 없어 처리 준다는 代理試驗, 무조건 교수에게 사정하며 배

달리는 학점 구걸, 課外 活動을 빌미로 결석을 변명하고 설상가상 높은 점수까지 주문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당당한 행태 등은 마치 기존의 학점 제도와 교수의 권위를 주저없이 비웃는 것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이 느낌은 필자만의 유별난 自嘲的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얘기들은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며 대학 문화의 浪漫이나 애교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보는 아량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일탈 행위는 어느 집단이나 있기 마련이고 그 이면에는 건전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더구나 학점에 관련한 이러한 풍토가 대학 문화의 전부는 물론 아니다. 또 이 문제에 지나치게 메달리는 것 자체가 스승과의 관계를 학점의 이해 관계로 무참히 전락시키는 학생들의 誤謬를 답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필자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학생이나 교수가 이러한 대학 문화의 현실을 아예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束手無策으로 방치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대학은 암묵적으로 權威의 否定이나 非道德性, 그리고 要式行爲를 용인함으로써 결국 이것들을 길러내는 文化와 教育의 現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 전체가 바로 권위의 부재와 도덕성의 상실, 걸치레 위주 形式主義의 문화적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성을 갖는다고 본다. 대학 문화는 일반 시민의 생활 문화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문화 창출에 중대한 몫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소위 일류 대학을 다니고 머지않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엘리트가 될 사람들이 대학 시절부터

권위와 도덕을 우습게 알고 적당주의와 편법으로 졸업장만 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주위의 이러한 일들에 별써부터 不感症을 보여 달관해 버린다면, 이들이 主役이 되는 未來社會 역시 오늘의 병폐가 지속되거나 심화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사회가 워낙 그러니까 대학 사회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린다면 이는 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교수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이때문에 고민하는 교수도 적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하나씩 實踐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함께 自問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한 개인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 내고 이를 집단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풀어 내는 방법을 더욱 열심히 研究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감히 묻고 싶다.

대학 사회의 民主化와 自律化의 크나큰 과제는 새로운 大學 文化의 定立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嫌惡해 온 과거의 억눌림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은 그 억눌림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體質化되고 惰性化된 문화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는 투철한 의식과 긴장된 노력으로부터 열릴 것이라 믿는다. 새로운 대학 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교수 사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학생들이 왜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꺼려하는지(물론 여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의 잘못과 오해를 따지기 이전에 교수의 自救의 意志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요즘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大學入試 非理가 더욱더 이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